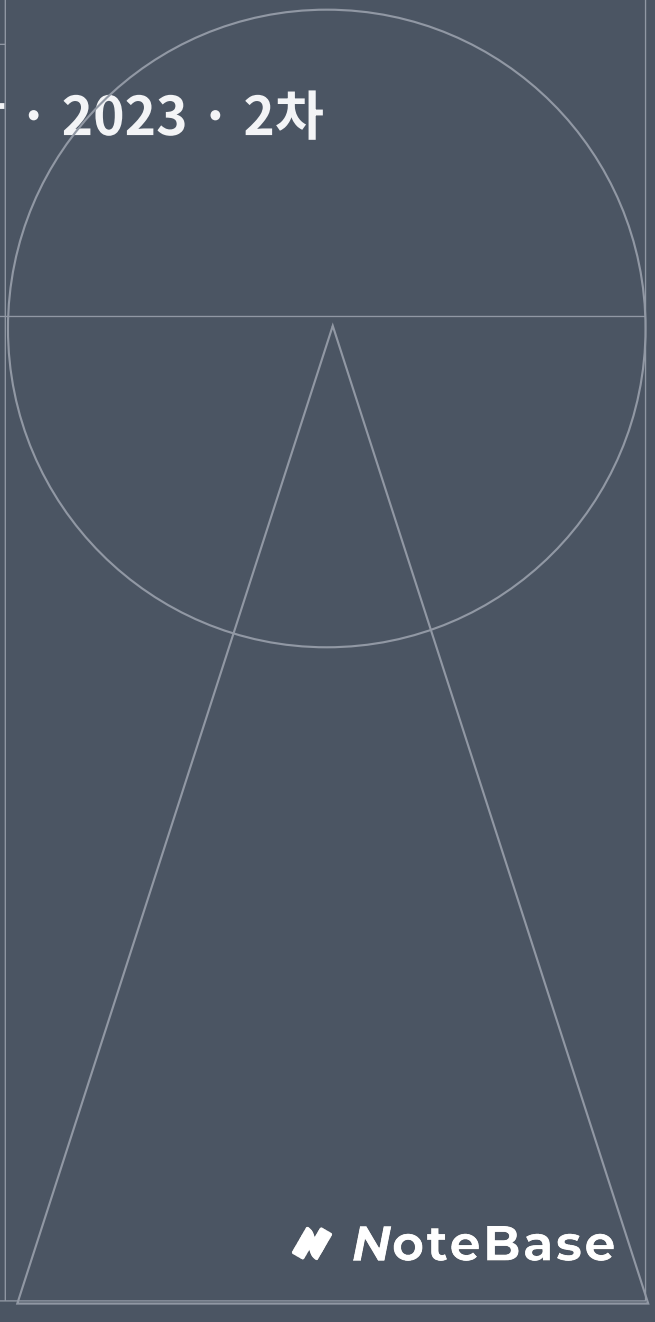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3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3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3 · 2차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 개인적인 능력의 판단과 관계가 있다.
◯ 영향요인으로는 숙달 경험, 신체적 혹은 정서적 각성, 대리경험 및 사회적 설득이 있다.

① 자아개념(self-concept)
② 자기조절(self-regulation)
③ 자기효능감(self-efficacy)
④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 자기조절,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기효능감: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 결정 차이축은 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이며, 키워드는 성공 수행 신념, 숙달 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이다.
자아개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인식과 지각이다. 결정 차이축은 자기 인식의 내용이며, 키워드는 자기 지각, 자기 인식이다.
자기조절: 학습이나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결정 차이축은 행동 관리 과정이며, 키워드는 계획, 점검, 통제이다.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서적 수용의 정도이다. 결정 차이축은 자기 가치의 평가이며, 키워드는 가치감, 존중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아개념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다.
틀린 부분은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에 자아개념을 대응시킨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고,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다.

② X
자기조절은 목표 설정, 전략 사용, 점검처럼 자신의 학습과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틀린 부분은 수행 가능성의 믿음을 자기조절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기조절은 행동을 관리하는 과정이고,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③ O
제시문은 어떤 결과를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개인적 능력 판단, 숙달 경험·신체적 혹은 정서적 각성·대리경험·사회적 설득을 영향 요인으로 제시한다.
이는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존재로 평가하는 감정적 태도이다.
틀린 부분은 능력 수행에 대한 기대를 자아존중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의 평가이고,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다.

오답 포인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모두 자기와 관련된 개념이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제시문처럼 숙달 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이 나오면 자기효능감을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④처럼 자기 가치 평가와 수행 기대를 섞어 놓는 표현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서 성공 수행에 대한 믿음, 능력 판단, 숙달 경험·대리경험·사회적 설득이 보이면 자기효능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인식이면 자아개념, 자기 가치 평가이면 자아존중감, 행동의 계획·점검·통제이면 자기조절이다.

암기 포인트

자기효능감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아존중감은 나는 가치 있다는 느낌, 자기조절은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이론은?

◯ 학습이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시행착오 학습은 성공적인 반응이 결합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 쏜다이크(E. L. Thorndike)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① 통찰설
② 자극-반응 연합설
③ 조작적 조건형성설
④ 목적적 행동주의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학습을 자극-반응의 결합이라는 핵심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통찰설은 쾰러의 이론으로, 문제 상황의 구조를 재조직하여 해답을 갑자기 깨닫는 학습을 말한다.
자극-반응 연합설은 손다이크의 이론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적인 반응이 자극과 결합되는 학습을 말한다.
조작적 조건형성설은 스키너의 이론으로, 행동 뒤에 주어지는 강화와 벌을 통해 반응의 빈도가 달라지는 학습을 말한다.
목적적 행동주의설은 톨먼의 이론으로, 유기체가 목표를 향해 행동하며 인지지도를 형성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통찰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학습이 아니라 문제의 관계를 한순간에 파악하는 학습이다. 틀린 표현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이고, 올바르게는 '문제 상황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갑작스러운 이해로 해결된다'이다.
② O: 자극-반응 연합설은 손다이크가 제시한 이론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한 반응이 점차 선택되고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강화된다고 본다. 제시문의 '성공적인 반응이 결합되는 점진적 과정'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③ X: 조작적 조건형성설은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다.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강화가 반응 빈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핵심이지, 손다이크식 시행착오 학습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손다이크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에 대응시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스키너가 강화 원리로 발전시킨 학습이론'이다.
④ X: 목적적 행동주의설은 톨먼의 이론으로, 학습을 단순한 자극-반응 결합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행동과 인지적 중개 과정으로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시행착오 학습'과 연결한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목표와 인지지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손다이크와 스키너는 모두 행동주의 계열이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손다이크는 시행착오와 효과의 법칙에 초점이 있고, 스키너는 강화에 따른 행동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시행착오', '성공 반응의 결합', '손다이크'가 함께 나오면 자극-반응 연합설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강화'는 스키너, '통찰'은 쾰러, '목표 지향·인지지도'는 톨먼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손다이크 = 시행착오 = 자극-반응 결합, 스키너 = 강화, 쾰러 = 통찰, 톨먼 = 목적과 인지지도이다.

NoteBase

문 3. 조선 시대 교육기관으로서 서당(書堂)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종 38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향(祭享)하면서 세운 사당에 기원을 두고 있다.
ㄴ.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官學) 성격의 교육기관이었다.
ㄷ. 촌락이나 동리와 같이 향촌 사회에 널리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초급 교육기관이었다.
ㄹ. 서재(書齋), 서실(書室), 서숙(書塾)은 서당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 서당의 성격을 서원, 관학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당은 마을 단위로 널리 운영된 사설 초급 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선현 제사와 유생 교육을 함께 한 사설 중등 교육기관이다.
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한 공식 교육기관이며, 서당과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 1번은 ㄱ, ㄴ의 조합인데 두 진술 모두 틀리다.
- ㄱ의 틀린 부분은 "주세붕이 안향을 제향하면서 세운 사당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서당이 아니라 서원의 성립 배경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서당은 민간에서 아동 교육을 위해 형성된 사설 초급 교육기관이다.
- ㄴ의 틀린 부분은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 성격"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서당은 국가 운영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설립·운영한 사학 성격의 교육기관이다.

2번 X
- 2번은 ㄱ, ㄹ의 조합인데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부분은 "주세붕의 사당에 기원을 둔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그 설명은 서원에 가깝고, 서당은 촌락 사회에 널리 존재한 초급 사설 교육기관이다.
- ㄹ의 "서재, 서실, 서숙은 서당을 지칭하는 용어"는 맞지만, 한 진술이라도 틀리면 조합형 정답이 될 수 없다.

3번 X
- 3번은 ㄴ, ㄷ의 조합인데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ㄴ의 틀린 부분은 "관학 성격"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서당은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다.
- ㄷ의 "촌락이나 동리에 널리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초급 교육기관"은 서당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맞다.

4번 O
- 4번은 ㄷ, ㄹ의 조합이며 두 진술이 모두 맞다.
- ㄷ은 서당이 향촌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던 초급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 ㄹ은 서당의 다른 명칭으로 서재, 서실, 서숙이 쓰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주세붕, 안향, 제향이라는 단어를 보면 서원의 성립 배경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를 서당과 혼동하면 ㄱ을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또한 조선 시대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당을 관학으로 착각하면 ㄴ까지 함께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시대 교육기관 문제는 먼저 운영 주체와 교육 수준을 구분하면 된다. 국가가 세우면 관학, 선현 제사와 중등 교육이 결합되면 서원, 마을의 아동 교육을 담당하면 서당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서당은 사설 초급 교육기관, 서원은 제향과 교육을 함께 하는 사설 중등 교육기관이다.

NoteBase

문 4. 동기이론 중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개인이 타인에 비해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사회적 비교이론이다.

②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저 요인은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

③ 개인이 불공정성을 인식하였을 때, 투입이나 성과를 조정하여 공정한 균형상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④ 공정성의 정도를 지각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투입 요인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노력, 교육 경험을 들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동기를 좌우하는 기준이 절대적 보상 크기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대적 공정성 지각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정성 이론은 자신이 투입한 것과 얻은 성과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하는 이론이다.
투입은 노력, 시간, 경력, 교육 경험처럼 개인이 일에 제공한 요소이고, 성과는 보수, 인정, 승진처럼 그 대가로 얻는 요소이다.
핵심 구별점은 절대적 보상액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통한 공정성 지각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성과 비율을 타인의 비율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 관점에 선다. 따라서 타인에 비해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표현이다. 공정성 이론에서 동기를 유발하거나 약화하는 기준은 절대적 보상 크기 자체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상대적 공정성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저 요인은 상대적 공정성 지각에 의해 좌우된다'이다.
③ O: 개인이 불공정성을 느끼면 투입을 줄이거나 성과를 더 요구하는 등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입이나 성과를 조정하여 공정한 균형상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노력, 교육 경험, 경력, 시간 투입 등은 공정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대표적 투입 요인이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노력, 교육 경험을 투입 요인으로 본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크면 동기가 생긴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찌른 선지이다. 공정성 이론은 보상이 많고 적음 자체보다 나와 타인의 투입-성과 비율이 균형적인지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성 이론 선지는 먼저 비교 기준이 절대액인지 상대적 비율인지부터 본다. 타인과의 비교, 투입-성과 비율, 불공정성 해소가 나오면 공정성 이론의 핵심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공정성 이론은 절대보상이 아니라 투입-성과 비율의 상대 비교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5. 소크라테스의 회상설(回想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진리는 본래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ㄴ. 학습자의 마음을 백지(白紙) 상태라고 규정한다.
ㄷ. 학습 및 교수 방법으로서 대화법과 산파술이 적합하다.
ㄹ.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상기설과 그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소크라테스: 상기설, 대화법, 산파술 - 진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안에 잠재한 것을 문답으로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로크: 백지설 - 마음은 경험 이전에 빈 서판과 같다고 보는 경험론의 관점이다.
주입식 교수관: 교사가 지식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는 반대되는 발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 오답이다. ㄱ의 '진리는 본래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상기설의 핵심이다. 그러나 ㄴ의 '학습자의 마음을 백지 상태라고 규정한다'는 표현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로크의 백지설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은 '학습은 내면에 잠재한 진리를 상기하는 과정으로 본다'이다.
2번 O: ㄱ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ㄱ은 상기설의 내용이고, ㄷ의 '대화법과 산파술'도 학습자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교수 방법과 맞는다.
3번 X: ㄴ과 ㄹ이 모두 틀려 오답이다. ㄴ의 '백지 상태'는 로크의 견해이고, ㄹ의 '지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한다'도 소크라테스와 맞지 않는다. 옳은 표현은 '교사는 문답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진리를 드러내게 돕는다'이다.
4번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려 오답이다. 산파술은 적절한 설명이지만, 소크라테스는 교사를 지식 주입자가 아니라 진리의 상기를 돕는 조력자로 본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 아니라 ㄱ, 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의 '백지'와 ㄹ의 '주입'이 그럴듯해 보여 경험론이나 전통적 주입식 교수관과 섞기 쉽다. 상기설은 빈 마음에 채워 넣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끌어내는 관점이라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크라테스가 나오면 먼저 상기설, 대화법, 산파술을 묶고 판단한다. 반대로 백지설, 경험의 축적, 지식 주입이 보이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크라테스는 상기와 산파, 로크는 백지와 경험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상담의 기법은?

◯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린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게 해 준다.
◯ 질문, 재진술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집단 구성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다시 생각하도록 해 주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① 해석
② 명료화
③ 피드백 교환
④ 공감적 반응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단상담에서 명료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해석, 피드백 교환, 공감적 반응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명료화는 내담자의 막연하고 뒤섞인 생각·감정·갈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는 기법이다. 해석은 상담자가 말이나 행동의 숨은 의미나 원인을 짚어 주어 통찰을 돕는 기법이다. 피드백 교환은 집단원들이 서로의 행동이 자신에게 준 인상과 영향을 주고받는 기법이다. 공감적 반응은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그 사람의 내면 기준에서 이해하여 되비추는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해석은 상담자가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새롭게 연결해 주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처럼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 내도록 돕고 질문, 재진술을 활용하는 것은 해석보다 명료화의 설명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해석'이다. 올바르게는 '명료화'이다.
2번 O: 명료화는 문제의 밑바닥에 깔린 감정과 갈등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더 또렷하게 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질문, 재진술, 요약 등을 활용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을 다시 보게 하는 자극 역할도 한다.
3번 X: 피드백 교환은 다른 집단원이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주고받는 기법이다. 제시문은 상호 반응의 교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호한 내면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피드백 교환'이다. 올바르게는 '집단원 간 반응을 주고받는 기술'이 피드백 교환이다.
4번 X: 공감적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적으로 반영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제시문처럼 질문과 재진술로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구체화하고 재사고를 촉진하는 기능은 공감적 반응보다 명료화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공감적 반응'이다. 올바르게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여 반영하는 기술'이 공감적 반응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명료화와 공감적 반응은 모두 감정을 다루므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공감적 반응은 이해와 수용의 전달에 중심이 있고, 명료화는 막연한 내용을 또렷하게 정리해 주는 데 중심이 있다. 해석은 상담자가 의미를 붙여 주는 한 단계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질문, 재진술, 요약, 분명하게 하기, 숨은 감정·갈등의 드러남이 나오면 먼저 명료화를 본다. 상담자가 새 의미를 제시하면 해석, 집단원끼리 반응을 주고받으면 피드백 교환, 감정을 이해해 되비추면 공감적 반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료화는 흐린 감정을 또렷하게, 해석은 숨은 의미를 연결하게, 공감은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게 한다.

NoteBase

문 7.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② 학교의 물리적 조건, 행정 조직, 사회 심리 상황 등의 환경에 기인한다.

③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의 지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④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 교육내용을 가리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의 개념 차이,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발생 근거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잠재적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교의 분위기, 규칙, 인간관계, 조직 문화 속에서 학생이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가치·태도·행동양식이다. 키워드는 비의도성, 학교 환경, 암묵적 학습이다.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가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문서와 수업을 통해 가르치려는 명시적 교육내용이다. 키워드는 의도성, 계획성, 명시성이다.
영교육과정: 배울 가치가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키워드는 누락, 배제, 미포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과서나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공식적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암묵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O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행정 조직, 사회 심리적 분위기 같은 환경에서 형성된다. 교실 구조, 상벌 분위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과 맞다.

③ O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협동, 경쟁, 권위 수용 같은 태도 영역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④ X
틀린 부분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 교육내용"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빠진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학습되는 내용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을 모두 공식 문서 밖의 내용으로 느껴 비슷하게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 영교육과정은 아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학교 환경, 분위기, 인간관계, 비의도적 학습이 나오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배울 가치가 있으나 빠져 있다, 제외되어 있다, 다루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영교육과정으로 판단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우는 것, 영교육과정은 배워야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 학생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수립한다.
◯ 문제 파악, 가설 설정, 가설 검증, 원리 적용의 단계를 거쳐 학습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의 탐구활동을 위해서 탐구의 자극, 탐구의 유지, 탐구의 방향성을 조장해야 한다.

① 토의법
② 강의법
③ 발견학습법
④ 완전학습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견학습법의 핵심 특징과 다른 교수·학습 방법의 구별 기준을 묻는다.

핵심 개념

발견학습법은 학습자가 문제를 탐구하면서 개념·원리·법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방법이다. 강의법은 교사가 내용을 설명하여 전달하는 방법이고, 토의법은 상호 의견 교환으로 사고를 심화하는 방법이며, 완전학습법은 충분한 시간과 교정학습을 통해 학습목표 도달을 보장하려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토의법'이라는 방법명이다. 토의법은 학습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이 핵심이지만, 제시문은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원리·법칙을 발견하고 문제 파악, 가설 설정, 가설 검증, 원리 적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므로 발견학습법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강의법'이라는 방법명이다. 강의법은 교사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전달 중심 수업이지만, 제시문은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과 탐구활동을 위한 자극·유지·방향 조성을 강조하므로 강의법이 아니라 발견학습법이다.
3번 O: 발견학습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 파악, 가설 설정, 가설 검증, 원리 적용의 절차와 교사의 탐구 자극·유지·방향 조성은 발견학습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정답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완전학습법'이라는 방법명이다. 완전학습법은 형성평가, 교정학습, 충분한 학습시간을 통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가설 검증과 원리 발견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완전학습법이 아니라 발견학습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의법이나 완전학습법으로 넓게 잡으면 틀린다. 이 문항의 결정어는 '스스로 개념·원리·법칙을 학습', '가설 설정·검증', '탐구의 자극·유지·방향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 학습자의 자기 발견, 가설 설정과 검증, 교사의 탐구 촉진 역할이 함께 나오면 발견학습법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설명 전달은 강의법, 상호 토론은 토의법, 형성평가와 보충·교정은 완전학습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스스로 발견·가설 검증이면 발견학습, 설명 전달이면 강의법, 의견 교환이면 토의법, 보충 교정이면 완전학습법이다.

NoteBase

문 9. 기능주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 교육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학교 교육은 기존 이념을 전수할 뿐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③ 학교 교육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④ 학교 교육에서의 성취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공정하다고 간주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능주의가 학교 교육을 사회통합, 사회유지, 선발과 배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과 갈등주의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주의: 학교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고 사회화, 사회통합, 선발과 배치를 통해 사회 전체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키워드는 공동체 의식, 연대, 역할분화, 능력주의이다.
갈등주의: 학교를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사회불평등을 유지하는 장으로 본다. 키워드는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 불평등이다.
판단 축: 학교를 사회통합의 장으로 보는지, 불평등 재생산의 장으로 보는지에 따라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주의는 학교가 사회구성원을 사회화하여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고 본다. 학교 교육의 통합 기능을 설명한 선지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존 이념을 전수할 뿐'과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지는 않는다'이다. 이는 학교를 주로 이데올로기 재생산 장치로 보는 갈등주의적 설명에 가깝다. 기능주의는 학교를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본다. 올바르게는 '학교 교육은 사회화와 문화 전달을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사회유지에 기여한다'이다.
③ O: 기능주의는 학교를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로 보고, 사회 전체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기능주의와 맞는다.
④ O: 기능주의는 학교가 성취와 능력에 따라 개인을 선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위치에 배치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성취에 따른 지위 차이를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주의 관점과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기존 이념 전수'라는 표현 때문에 문화전달 기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핵심은 학교를 지배 이념의 재생산 장치로 보는 시각이다. 기능주의의 문화전달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화 기능이고, 갈등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수는 불평등 유지의 장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공동체 의식, 사회연대, 사회유지, 선발과 배치, 능력주의가 나오면 기능주의로 판단한다. 반대로 지배 이데올로기, 불평등 재생산, 계급 유지가 나오면 갈등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주의는 통합과 유지, 갈등주의는 재생산과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10. 가네(R. M. Gagné)의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업 목표는 수업의 본질이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결과로 획득되는 능력을 말한다.

② 학습자의 학습 성과는 지적 기능, 언어정보, 인지 전략, 태도, 운동기능 영역으로 구분된다.

③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직접 교수 모형이기 때문에 정보처리이론이 배제되었다.

④ 학습의 외적 조건은 학습자 주위의 수업 사상(events)을 통해 학습자의 내적 과정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방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가네의 교수-학습이론에서 학습성과의 분류, 수업목표의 의미, 학습의 외적 조건과 내적 과정의 관계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가네는 학습 결과를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수행 중심으로 본다.
가네의 학습성과는 지적 기능, 언어정보, 인지 전략, 태도, 운동기능의 다섯 범주로 정리된다.
가네의 교수이론은 행동주의만 따르는 모형이 아니라 정보처리 관점을 받아들여 학습의 내적 조건과 이를 지원하는 외적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수업사태(events of instruction)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의, 파지, 인출 같은 과정을 돕기 위해 교사가 조직하는 외적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네의 수업목표는 수업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뒤 학습자가 보여야 할 성취 행동과 능력을 밝히는 것이다. 수업목표를 학습결과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옳다.
② O: 가네는 학습성과를 지적 기능, 언어정보, 인지 전략, 태도, 운동기능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한다. 제시된 다섯 범주가 그대로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정보처리이론이 배제되었다'는 표현이다. 가네의 이론은 행동주의적 체계성과 함께 정보처리이론을 수용하여 학습의 내적 과정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가네의 교수이론은 행동주의와 인지적 정보처리 관점을 결합하여 설명한다'이다.
④ O: 학습의 외적 조건은 학습자 바깥에서 제공되는 수업사태를 뜻하며, 이는 학습자의 내적 학습과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외적 조건을 수업사태를 통한 지원으로 본 설명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직접 교수'와 '행동주의'라는 익숙한 단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정보처리이론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한 것이 함정이다. 가네는 외적 수업사태와 내적 학습과정을 연결해 설명하므로, 인지적 정보처리 관점을 빼 버리면 오히려 이론의 핵심이 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네 문항은 먼저 '학습성과 5영역', '수업목표는 학습결과 중심', '수업사태는 내적 과정을 돕는 외적 조건'을 기준점으로 잡아 판단한다. 선지에 '정보처리 배제', '내용 중심 목표'처럼 이 기준과 반대로 서술된 표현이 나오면 오답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가네 = 학습성과 5영역 + 수업사태 9개 + 내적 과정과 외적 조건의 연결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정도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오직 시험만으로 평가해 국가가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 학위취득을 위해서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 7급 이상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유치원·초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는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검정고시
② 독학학위제
③ 학점은행제
④ 평생학습계좌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 중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학학위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습 성과를 단계별 시험으로 평가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시험 중심,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 교육, 자격, 훈련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누적한 뒤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학점 인정과 누적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학습이력 관리이다.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다. 키워드는 학교급 학력 인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문은 자기 주도 학습 성과를 시험만으로 평가해 학위를 주는 제도와 단계별 인정시험, 일부 시험 면제까지 설명하므로 검정고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검정고시"이다. 올바르게는 초중등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은 검정고시이고, 제시문에 해당하는 제도는 독학학위제이다.
② O: 독학학위제는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단계별 인정시험과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합격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일부 시험 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독학학위제의 특징이다.
③ X: 학점은행제는 여러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누적하는 제도이지, 제시문처럼 단계별 인정시험을 모두 거치는 시험 중심 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학점은행제"이다. 올바르게는 학점은행제는 학점의 인정과 축적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④ X: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지, 시험만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평생학습계좌제"이다. 올바르게는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누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학위 취득이라는 말만 보고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독학학위제는 시험 단계가 핵심이고,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과 누적이 핵심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위 수여 제도가 아니라 학습이력 관리 제도라는 점도 자주 섞여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단계별 인정시험, 종합시험, 시험 일부 면제처럼 시험 절차가 보이면 독학학위제를 먼저 떠올린다. 학점을 모아 학위를 받는 구조이면 학점은행제이고, 학습 이력을 누적·관리하면 평생학습계좌제이며, 초중등 학력 인정시험이면 검정고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독학학위제는 시험으로 학위, 학점은행제는 학점으로 학위,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력 관리, 검정고시는 학교급 학력 인정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학의 유형은?

◯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진 장학활동이다.
◯ 장학활동이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에 상하관계보다는 쌍방적 관계를 지향한다.
◯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지각·신념·태도·지식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수업의 개선을 도모한다.

① 임상장학
② 약식장학
③ 동료장학
④ 지방장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 지방장학의 초점과 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임상장학은 실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협의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장학이다. 키워드는 수업 관찰, 상호작용 분석, 피드백이다.
약식장학은 일상적이고 짧은 방식으로 수업을 보고 즉시 조언하는 간이형 장학이다. 키워드는 간편성, 신속성, 비공식성이다.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수업을 돕고 개선하는 협력적 장학이다. 키워드는 동료성, 상호협력, 공동성장이다.
지방장학은 지역 교육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이다. 키워드는 교육청, 지역 단위, 행정적 지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지각·신념·태도·지식을 바탕으로 수업 개선을 도모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수업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임상장학의 특징과 일치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약식장학"이다. 약식장학은 짧고 비공식적인 수업 참관과 즉각적 조언이 중심이며, 제시문처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장학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임상장학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동료장학"이다. 동료장학도 대등성과 상호협력을 중시하지만, 제시문의 핵심은 동료 교사 간 협력 자체가 아니라 수업 장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개선하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임상장학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지방장학"이다. 지방장학은 지역 교육청이나 지방 교육행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을 가리키며, 제시문처럼 학급 내 수업 상호작용 분석을 직접적인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임상장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쌍방적 관계"만 보고 동료장학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수업의 개선"이라는 표현이며, 이는 동료 교사 협력이 아니라 임상장학의 수업 관찰 중심 성격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학 유형 문제는 먼저 장학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음으로 무엇을 분석하는지 본다.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그 자료로 협의하면 임상장학이고, 동료 교사끼리 서로 돕는 구조이면 동료장학이며, 짧고 간편한 현장 조언이면 약식장학이고, 지역 교육행정 단위의 지도와 지원이면 지방장학이다.

암기 포인트

임상장학은 학급 수업 상호작용 분석, 동료장학은 교사 간 협력, 약식장학은 간편한 현장 조언, 지방장학은 지역 교육행정 장학이다.

NoteBase

문 13.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문화자본은 개인의 기술적 생산력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에 해당한다.
ㄴ. 학교 졸업장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형태를 띤 가장 대표적인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다.
ㄷ. 학교는 지배집단의 자의적인 문화 상징물에 대해 가치와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
ㄹ. 문화자본은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과 그 하위 유형, 그리고 학교가 지배문화를 정당화하며 계급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재생산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부르디외: 문화자본은 개인이 지닌 언어능력, 취향, 학습 습관, 문화적 교양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 자원이다.
문화자본의 형태는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나뉜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 예술품, 악기처럼 물건의 형태를 띠는 문화재이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력·졸업장처럼 제도가 공인한 자격이다.
학교는 지배집단의 문화를 정당한 문화로 승인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계급질서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을 묶은 선택지인데 두 진술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의 "인적 자본"이 잘못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문화자본은 기술적 생산성을 뜻하는 인적 자본이 아니라 언어능력, 취향, 학업성향 같은 문화적 자원을 뜻한다. ㄴ의 "객관화된 문화자본"도 잘못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학교 졸업장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다.
2번 X: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아 오답이다. ㄱ은 문화자본과 인적 자본을 혼동한 진술이다. 반면 ㄷ은 학교가 지배집단의 자의적인 문화 상징물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문화재생산론의 핵심을 정확히 말한다.
3번 X: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아 오답이다. ㄴ의 오류는 졸업장을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졸업장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이고,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이나 예술품처럼 소유 가능한 문화재이다. ㄹ은 문화자본이 교육을 통해 계급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4번 O: ㄷ과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ㄷ은 학교가 지배문화에 가치와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ㄹ은 그러한 문화자본의 작동이 결과적으로 계급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문화자본을 인적 자본과 혼동하게 만들고, 문화자본의 유형 가운데 객관화된 형태와 제도화된 형태를 뒤섞게 만드는 데 있다. 특히 졸업장은 학교가 공인한 자격이라는 점에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지, 책이나 예술품처럼 물건으로 소유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르디외 문항은 먼저 문화자본과 인적 자본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체화·객관화·제도화의 세 형태를 나눈 뒤, 학교의 기능이 정당화와 재생산인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학력은 제도화, 책·예술품은 객관화, 취향·언어습관은 체화로 연결하면 선지 판별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부르디외는 학력은 제도화, 책·예술품은 객관화, 학교는 지배문화를 정당화하고 계급을 재생산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14. 변혁적 지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도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높은 수행과 발전을 유도한다.

③ 봉사와 그 대가인 보상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구성원을 보다 많이 동기화시킨다.

④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재구조화하여 구성원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혁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와 거래적 지도성의 보상 교환 논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변혁적 지도성은 구성원의 가치관과 동기를 높여 기대 이상의 수행을 이끌어 내는 지도성이다. 키워드는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이다.
거래적 지도성은 성과와 보상을 교환하는 조건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원을 관리하는 지도성이다. 키워드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도자가 신뢰와 존경을 받아 모범이 되는 것은 변혁적 지도성의 이상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구성원이 지도자를 동일시하고 따르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옳다.
2번: O.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자극하여 높은 수행과 발전을 이끄는 것은 영감적 동기부여의 설명이다. 변혁적 지도성은 외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와 비전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옳다.
3번: X. 틀린 표현은 "봉사와 그 대가인 보상을 상호 교환함으로써"이다. 이는 성과와 보상의 교환을 강조하는 거래적 지도성의 조건적 보상에 가깝다. 변혁적 지도성은 보상 교환보다 비전 공유와 내적 변화로 동기를 높인다.
4번: O. 일상적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재구조화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지적 자극의 설명이다. 기존 가정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동기화"라는 표현 때문에 변혁적 지도성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동기의 원천이다. 보상 교환이 앞에 나오면 거래적 지도성이고, 비전·가치·창의성의 변화가 앞에 나오면 변혁적 지도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보상 교환, 조건 충족, 예외 관리가 나오면 거래적 지도성으로 판단한다. 신뢰와 존경, 비전 제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가 나오면 변혁적 지도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변혁적 지도성은 사람을 바꾸고, 거래적 지도성은 보상을 주고받는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결정 모형은?

◯ 정책 결정이 합리성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관, 창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혁신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① 최적 모형(optimal model)
② 만족 모형(satisfying model)
③ 점증 모형(incremental model)
④ 혼합 모형(mixed-scanning model)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교육정책 결정 모형 중 최적 모형의 성격과, 만족 모형·점증 모형·혼합 모형의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적 모형은 합리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직관·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 동원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찾는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현실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혁신성보다 안정성과 타협을 중시한다.
혼합 모형은 큰 방향은 폭넓게 훑고 세부 단계는 점증적으로 조정하는 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이 순수한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직관·창의도 활용한다. 또한 혁신적 대안을 탐색할 수 있지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만족 모형은 혁신적 최적 대안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충분히 괜찮은 대안을 택하는 모형이다. 틀린 표현은 직관·창의와 혁신적 결정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할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③ X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과 타협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틀린 표현은 혁신적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급진적 혁신보다 현실적 조정과 점진적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④ X 혼합 모형은 기본 방향을 넓게 탐색한 뒤 세부 결정을 점증적으로 다루는 절충형 모형이다. 틀린 표현은 직관과 창의를 핵심 특징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결합해 거시적 탐색과 미시적 조정을 함께 사용한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최적 모형과 혼합 모형은 둘 다 합리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직관·창의·초합리성을 전면에 두고 혁신성과 이상성을 함께 말하면 최적 모형이고, 거시적 탐색과 점증적 세부 조정을 함께 말하면 혼합 모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최선·혁신·직관·창의·이상주의 비판이 함께 나오면 최적 모형을 먼저 떠올린다. 만족할 수준이면 만족 모형,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이면 점증 모형, 큰 방향 탐색과 세부 점증 조정의 결합이면 혼합 모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은 최선 추구와 직관·창의, 만족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 점증은 조금씩 수정, 혼합은 큰 틀은 넓게 보고 세부는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NoteBase

문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국가 단위 위원회의 소속, 교육감의 전담부서 설치 의무, 가해학생 퇴학처분의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단위 정책 심의기구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등에 두는 사건 심의기구이다.

핵심 구분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 · 시행하고 5년마다 수립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교육감은 시 · 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가해학생 조치 중 퇴학처분은 가능하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법 제6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 시행한다는 취지는 맞다.

② O
법 제7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도 그 심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선지는 옳다.

③ O
법 제11조제1항은 교육감이 시 ·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 ·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지는 전담부서 설치 · 운영 의무를 맞게 서술하였다.

④ X
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구조이지, 심의위원회가 직접 퇴학처분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국가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섞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해 정도가 심하면 예외적으로 퇴학이 가능하다고 추론하면 안 되며,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문제는 먼저 주체와 소속을 본다. 교육부장관인지 교육감인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인지 구분한 다음, 조치 규정에서는 예외 문구인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획은 5년,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전담부서는 교육감 설치, 의무교육 가해학생은 퇴학 불가이다.

NoteBase

문 17.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의미한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지식이어야 한다.

②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의 중심은 학습자가 활용할 자원과 정보이다.

③ 교육과정 개발은 교과의 논리나 구조가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④ 교사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대화 및 협력 도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성주의 학습관에서 지식의 성격, 학습환경 설계의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 교사의 지원 방식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성주의는 지식을 학습자가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의 중심은 학습자가 해결할 실제적 문제나 과제이며, 정보 자원과 도구는 그 해결을 지원하는 요소이다.
교육과정도 교과의 고정된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교사와 학습자가 놓인 삶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성주의는 의미 있는 지식을 외부에서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기존 경험과 새로운 경험을 연결하며 스스로 구성한다고 본다.
② X: 틀린 부분은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의 중심은 학습자가 활용할 자원과 정보'라는 표현이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의 중심은 자원과 정보가 아니라 학습자가 탐구하고 해결할 문제·과제·상황이다. 올바르게는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의 중심은 학습자가 해결할 실제적 문제와 그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논리적 체계만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교사와 학습자가 처한 실제 삶의 맥락, 경험, 상호작용에서 출발한다.
④ O: 구성주의에서 교사는 정답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조력자이므로 대화와 협력 도구를 제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 지식 구성을 촉진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원과 정보'라는 표현이 그럴듯해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구성주의에서 그것들은 중심이 아니라 지원 요소이다. 구성주의 선지에서는 무엇이 중심인가를 묻는 경우 '문제·과제·맥락·상호작용'이 중심이고 '자료·도구·정보'는 이를 돕는 주변 요소라는 점에서 정오가 갈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성주의 관련 선지를 보면 먼저 지식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으로 학습환경의 중심이 전달 내용인지 문제 해결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이 전달자인지 촉진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성주의는 학습자 구성, 문제 중심, 맥락 중시, 교사 촉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과대학의 교육생을 훈련할 때 발생한 교육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며 이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격을 가진다.

③ 학습자는 상호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 비판적 사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④ 교사는 지식전달자의 역할 대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제중심학습의 핵심 성격, 특히 문제의 성격과 교사·학습자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제중심학습은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가 협력적으로 탐구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방식이다.
전통적 문제풀이는 정답이 정해진 구조화된 문제를 적용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는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이론 문제와 다르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라기보다 촉진자이며,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자료를 찾고 해결안을 구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제중심학습은 의학교육에서 출발한 접근으로, 기존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정답이 정해져 있으며 이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 다루는 문제는 실제 맥락과 연결된 비구조화된 문제이며, 하나의 정답이 미리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실제 맥락의 비구조화된 문제이며 다양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성격을 가진다."이다.
③ O: 문제중심학습은 토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구성하므로 성찰, 비판적 사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④ O: 문제중심학습에서 교사는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를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오답 포인트

문제라는 단어만 보고 모든 문제를 정답이 있는 일반 문항처럼 생각하면 ②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를 전통적 학습문제와 같다고 바꾸어 놓은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중심학습이 보이면 먼저 문제의 성격이 실제적·비구조화된 것인지, 학습자 중심 탐구가 이루어지는지, 교사가 촉진자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이 미리 정해진 이론 문제라고 하면 문제중심학습과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문제, 비구조화, 협력 탐구, 교사의 촉진자 역할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Organized Anarchy)으로 학교조직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②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합의된 견해가 없다.

③ 학생은 입학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졸업하고, 교사와 행정가도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④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세 특징인 목표의 불분명성, 기술의 불확실성, 유동적 참여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구성원과 의사결정이 완전히 무질서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도 합의되지 않으며 참여자도 고정되지 않는 조직을 뜻한다.
핵심 특징은 문제선호의 불분명성, 기술의 불확실성, 유동적 참여이다.
따라서 학교조직을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교육목표로 삼을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누가 언제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늘 명확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학교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진술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문제선호의 불분명성에 해당한다.

② O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합의된 견해가 없다는 진술은 기술의 불확실성을 설명한다. 학교에서는 교수방법의 효과와 절차가 항상 명확하게 표준화되지 않는다.

③ O
학생이 졸업으로 빠져나가고 교사와 행정가가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필요시에만 참여한다는 진술은 유동적 참여를 보여 준다. 참여자는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④ X
틀린 부분은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목표의 불분명성, 기술의 불확실성,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참여는 에치오니의 강제조직을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조직 유형론의 권력·참여 방식과 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④처럼 강제적 권력, 소외적 참여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학교조직의 조직화된 무질서와는 다른 분류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조직을 조직화된 무질서로 묻는 문항은 먼저 세 키워드만 대조하면 된다. 목표가 불분명한가, 방법이 불확실한가, 참여가 유동적인가를 확인하고, 권력 유형이나 참여 순응 방식이 나오면 다른 이론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목표 불분명, 기술 불확실, 참여 유동이다.

NoteBase

문 20.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반분검사 신뢰도는 두 부분 검사로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다르게 추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ㄴ. 내용 타당도는 내용 전문가에게 측정하려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판단하게 하여 검증한다.
ㄷ.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 간 측정의 일치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검사-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ㄹ.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집단이 하나의 검사를 치르고 점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검사도구의 신뢰도 추정 방법과 내용 타당도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분검사 신뢰도는 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 부분 점수의 상관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내용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적절히 대표하는지를 내용 전문가의 판단으로 검토하는 타당도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집단에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하여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보는 방법이다.
문항 간 일치성을 보는 것은 검사-재검사가 아니라 내적 일관성 신뢰도이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같은 집단에 동형의 두 검사를 실시한 뒤 점수 상관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과 ㄴ만 옳은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ㄱ은 반분검사 신뢰도가 문항을 어떻게 둘로 나누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ㄴ도 내용 타당도가 전문가 판단을 통해 측정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번 X: ㄷ이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ㄷ의 틀린 부분은 '문항 간 측정의 일치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검사-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각각의 문항 간 일관성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해 안정성을 본다.
3번 X: ㄹ이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ㄹ의 틀린 부분은 '두 집단이 하나의 검사를 치르고'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같은 집단이 동형의 두 검사를 치르고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로 동형검사 신뢰도를 추정한다.
4번 X: ㄷ과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ㄷ은 문항 간 일치성을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잘못 연결했고, ㄹ은 동형검사 신뢰도의 실시 대상과 방법을 잘못 설명했다. 올바르게는 ㄷ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ㄹ은 같은 집단에 두 동형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신뢰도 유형의 이름이 비슷해서 '문항 간 일치성'을 검사-재검사로, '동형검사'를 두 집단 비교로 바꾸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무엇을 비교하는지, 같은 검사인지 다른 동형검사인지, 같은 집단인지 같은 시점인지의 기준을 섞어 놓은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뢰도 문항은 먼저 무엇의 일관성을 보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면 검사-재검사, 반으로 나눈 두 부분의 상관이면 반분검사, 문항들 사이의 일관성이면 내적 일관성, 동형 두 검사의 상관이면 동형검사로 구분한다. 타당도는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재는지의 문제이므로 전문가 판단이 나오면 내용 타당도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반분은 한 검사를 둘로 나눈다, 재검사는 같은 검사를 두 번 본다, 동형은 같은 집단이 두 동형검사를 본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내용 대표성을 본다.

NoteBase

문 21. 인지상담이론 중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안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므로, 재학습을 통해 교정하면 사라진다.

② 심리적 문제는 어린 시절 경험을 억압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③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간의 간극으로 인해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

④ 부정적 정서나 행동은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담이론별로 심리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구분하여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의 핵심을 찾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합리적 정서 치료는 Ellis의 인지상담으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 행동을 만든다고 본다.
행동주의 상담은 불안과 부적응을 잘못 학습된 반응으로 보고 재학습과 조건형성의 수정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신분석 상담은 억압된 어린 시절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을 심리 문제의 근원으로 본다.
인간중심 상담은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가 클수록 부적응이 커진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불안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라는 설명은 행동주의 상담의 관점이다. 틀린 표현은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에 대한 설명처럼 제시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행동주의 상담은 불안과 부적응을 학습된 반응으로 보고 재학습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X. '어린 시절 경험을 억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설명은 정신분석 상담의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심리 문제의 원인을 억압된 유년기 경험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합리적 정서 치료는 현재의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
③ X.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간의 간극'은 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부적응의 원인이다. 틀린 표현은 자아 간 불일치를 합리적 정서 치료의 설명처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인간중심 상담은 자아 불일치를, 합리적 정서 치료는 비합리적 신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본다.
④ O. 부정적 정서나 행동이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설명은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의 핵심이다. REBT는 선행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해석과 신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담이론 문항은 문제의 원인 진단 문장을 서로 바꿔 넣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①의 '잘못된 학습', ②의 '억압된 어린 시절 경험', ③의 '이상적 자아-현실적 자아의 간극'은 각각 다른 이론의 대표 표지인데, 이를 REBT와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담이론은 먼저 문제 원인을 가리키는 핵심어를 잡아 이론과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학습된 반응이면 행동주의, 억압과 무의식이면 정신분석, 자아 불일치면 인간중심, 비합리적 신념이면 합리적 정서 치료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REBT는 사건보다 신념을 본다.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를 흔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2. 피터스(R. S. Peters)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준거(criter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스는 자신의 저서 『윤리학과 교육』에서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② 규범적 준거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의 개념에 붙박여 있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③ 인지적 준거는 학습자가 부분적인 기능에 숙달하여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과정적 준거는 교육의 규범적 준거가 방법 면에서 상세화된 것을 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준거를 가치, 인지, 방법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범적 준거는 교육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인지적 준거는 단순한 기능 훈련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를 통해 사물을 보는 안목을 형성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과정적 준거는 교육이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피터스는 『윤리학과 교육』에서 교육 개념을 분석하며 교육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② O
규범적 준거는 교육이 개념 속에 내재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단순한 조련이나 가치 중립적 기능 습득만으로는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③ X
틀린 부분은 "부분적인 기능에 숙달하여도 이를 용인"한다는 표현이다. 인지적 준거는 부분 기능의 숙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지식과 이해를 통해 인지적 안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인지적 준거는 단순한 부분 기능의 숙달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를 통한 안목의 형성을 요구한다"이다.

④ O
과정적 준거는 교육이 방법 면에서도 교육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규범적 준거가 방법 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기능 숙달'이라는 표현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게 만든다. 피터스는 교육을 단순한 스킬 트레이닝과 구별하므로, 부분 기능 숙달만 허용하는 설명은 인지적 준거와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터스의 준거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을 이해하게 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세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치의 문제이면 규범적 준거, 지식과 이해 및 안목의 문제이면 인지적 준거, 학습자의 자발성과 이해를 살리는 방법의 문제이면 과정적 준거이다.

암기 포인트

피터스 준거는 규범은 가치, 인지는 이해, 과정은 방법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3. 스터플빔(D. L. Stufflebeam)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영자의 결정에 판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영자 위주의 접근이라고 불린다.
ㄴ. 상황(Context)평가, 투입(Input)평가, 과정(Process)평가, 산출(Product)평가로 구성된다.
ㄷ. 평가의 주된 목적은 목표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ㄹ. 예술작품을 비평하는 것과 같은 전문가의 감식안(connoisseurship)에 근거한 평가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터플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을 대표 키워드인 관리 지향성, CIPP, 목표달성평가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스터플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은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지향 평가이다.
대표 틀은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의 CIPP 모형이다.
목표 달성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타일러의 목표중심평가에 가깝다.
전문가의 감식안과 비평을 중시하는 평가는 아이즈너의 감식안과 비평 모형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1번: O. 1번은 ㄱ, ㄴ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ㄱ은 스터플빔 평가가 의사결정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관리 지향 접근이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도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의 CIPP 구성요소를 정확히 제시하므로 옳다.
2번: X. 2번은 ㄱ과 ㄹ이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전문가의 감식안(connoisseurship)에 근거한 평가"이다. 올바르게는 스터플빔은 의사결정 정보를 중시하며, 감식안과 비평 평가는 아이즈너와 연결된다.
3번: X. 3번은 ㄴ과 ㄷ이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평가의 주된 목적은 목표 실현 정도를 파악"이다. 올바르게는 스터플빔 평가는 목표 달성 확인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
4번: X. 4번은 ㄷ과 ㄹ이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ㄷ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ㄷ은 타일러의 목표중심평가를 섞은 것이고, ㄹ은 아이즈너의 감식안과 비평 모형을 섞은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의 "목표 실현 정도"와 ㄹ의 "감식안"은 각각 타일러와 아이즈너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 표현이다. 스터플빔의 CIPP를 알고 있어도 다른 평가 모형의 대표 키워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 모형 문제는 먼저 대표 키워드를 인물이나 모형에 연결해 판단한다. 스터플빔이 나오면 관리 지향, 의사결정 정보 제공, CIPP를 먼저 확인하고, 목표달성은 타일러, 감식안과 비평은 아이즈너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스터플빔 = 의사결정 정보 제공 = CIPP, 타일러 = 목표달성, 아이즈너 = 감식안과 비평이다.

NoteBase

문 24. 과학적 관리론이 교육행정에 적용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비트(F. Bobbitt)는 과학적 관리기법을 학교경영에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학교를 공장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제 모델(factory model)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③ 과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실 관찰 중심의 교육행정이론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④ 스폴딩(F. Spaulding)은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행정에도 기업경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행정에 적용한 대표 인물과 핵심 특징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비트: 과학적 관리의 학교 적용 - 학교경영 전반에 과업 분석, 표준화, 능률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스폴딩: 기업경영 원리의 학교행정 적용 - 학교행정의 비능률을 줄이기 위해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과학적 관리론: 능률, 표준화, 분업, 시간 절약을 중시하는 초기 교육행정 이론이다.
행동과학적 접근: 사실 관찰과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하려는 후대의 접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비트는 학교를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조직으로 보고 과학적 관리기법을 학교경영에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O
과학적 관리론은 학교를 생산조직처럼 보고 효율과 표준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공장에 비유한 공장제 모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③ X
틀린 부분은 "과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실 관찰 중심의 교육행정이론 개발"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과학적 관리론 자체의 핵심이라기보다 이후 행동과학적 교육행정 연구의 성격에 더 가깝다. 올바르게는 과학적 관리론은 학교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리기법을 적용한 이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O
스폴딩은 학교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경영의 원리와 관리기법을 학교행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본 대표적 인물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과학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는 설명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과학적 관리론은 경험적 사실연구 중심 이론이 아니라 능률과 표준화를 앞세운 관리기법의 도입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면 먼저 능률, 표준화, 분업, 기업경영 원리, 공장제 모델 비판을 떠올린다. 반대로 사실 관찰, 경험적 연구, 행정현상 설명 중심의 문장이 나오면 행동과학적 접근과 연결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과학적 관리론 = 학교의 능률화, 보비트·스폴딩 = 경영 원리 적용, 사실관찰 중심 이론화 = 행동과학적 접근이다.

NoteBase

문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감은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교육장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③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감의 대표권·선결처분·후보자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학생통학구역 사무가 교육장 관련 사무이더라도 법률상 교육감이 반드시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선결처분 =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면 학생의 안전이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생길 때 집행기관이 먼저 하는 임시 처분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교육감은 학생통학구역 등 교육·학예 사무의 주체이다. 다만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일부 사무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교육장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그 사무를 분장한다.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와 '위임하여야 한다'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 분장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률은 교육감이 일부 사무를 교육장 등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틀린 표현: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O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③ O
-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고, 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감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④ O
- 교육감후보자는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오답 포인트

학생통학구역이 교육장 업무라는 점만 보고 곧바로 '반드시 위임'으로 읽기 쉽다. 이 문제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감의 위임 재량을 혼동하는지를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바뀌면 먼저 의무 규정인지 재량 규정인지부터 확인한다. 주체가 교육장으로 내려가더라도 법률상 당연위임인지, 위임 가능 규정인지 구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교육장 사무라고 해서 자동 위임은 아니다. 교육감 권한은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